

“약속도 안했는데 나가보면 한자리
5·18은 정치적 장난 아닌 피의 투쟁”
1학년 2반 54번 최병문

“사태라기보다 의거라 칭하고 싶다
불순분자 책동은 믿을 수 없는 말”
1학년 4반 33번 서충렬

“국가 권력자들 억압하려하지 말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되도록 해야”
1학년 6반 31번 서왕진

“광주 시민의 올바른 국가관 누구도 못 따라와”

1981년 석산고 1학년 186명이 쓴 '5·18작문집' 오늘 학술대회서 첫 공개

이상윤 교사 주도로 만들어...5·18 이후 최단시간 내 이뤄진 집단 증언

“언제 어디서 모이자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나가 보면 모두한자리같이 보면 광주 시민(의) 국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구나 하는걸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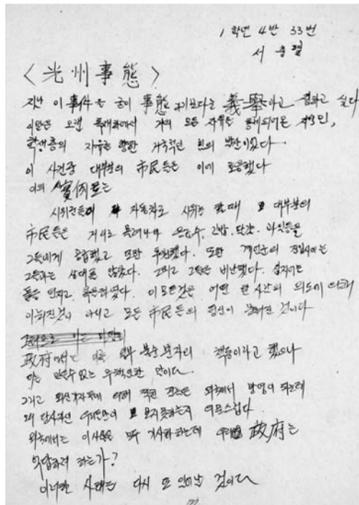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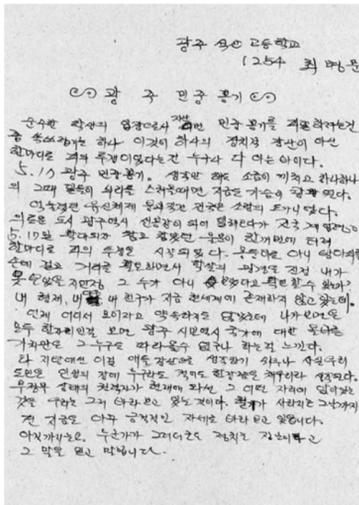
석산고 1학년 2반 54번 최병문 씨가 40년 전인 1980년 5월을 직접 경험한 뒤 10개월 후 ‘광주 민중봉기’라는 제목으로 직접 기록한 작품이다.

40년 전 17살, 숙청 ‘머리에 피도 안마르’ 최씨에게도 5·18은 “정치적 장난이 아닌 한마디로 피의 투쟁”이며 공동체 그 자체였다는 게 그가 쓴 작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 3일, ‘오월, 그날의 청소년을 만나다’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고 40년 전 5·18을 경험했던 석산고 1학년생 186명이 쓴 ‘5·18작문집’을 공개한다.

작문집은 석산고 국어교사인 이상윤 선생이 1981년 2월 말께 2학년으로 올라가는 석산고 1학년 학생들에게 내준 숙제였다. 성격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당시 1학년 8개 반 186명이 숙제를 제출했다. 반과 이름을 적은 작문이 144개, 이름만 확인되는 작문이 1개, 반만 적은 작문이 13개, 어떠한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작문이 28개이다.

작문집은 같은해 5월, 동료 교사인 박형민 선생에게 전달됐고 박선생은 1987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기증했다. 이렇게 전달된 작문집은 지난 7월 5·18기록관에 기탁됐다. 작문집 일부가 전시된 전시물도 활용된 적은 있지만 전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작문에는 학생들이 쓴 5·18 현장에 대한 느낌, 정부의 인식 등이 드러난다.



당시 석산고 1학년 4반 33번이던 서충렬씨의 작문에는 “이 사건을 굳이 ‘사태라기보다는 의거’라고 칭하고 싶다”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일부 불순분자의 책동이라고 했으니 이는 믿을 수 없는 무책임한 말이다. 그리고 의신기자 등에 의해 적힌 필름은 외국에서 방영이 되는데 왜 당사자인 우리

들만이 보지 못하는지 의문스럽다. 외국에서는 이 사실을 모두 기사화 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억압하려 하는가?”라고 쓰여 있었다. 당시 5·18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통제, 불합리한 언론보도 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처참한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5월 20일에는 도청으로 친구와 가는 도중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무수히 얻어맞아 피멍이 들어 죽어있는 시체를 달구지에 싣고 몰고 다니는 인파를 본 것이다. 얼마나 맞았으면 그렇게 됐을까”, “도청 주위에 바리케이트를 친 군인들을 뚫을려고 하다 발포된 총탄에 청년이 사살된 것을 보았다. 초등학생이 구경하다 총탄에 맞는 것도 보았다”, “상무관에는 시체 주인이 나온 사람에게 한해 관에 넣어 거기에 임시 안치해놓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향을 피우고 애국가 제창을 하며 그들의 넋을 위해 묵념을 드리기도 했었다” 등 무서운 현장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진다.

1학년 6반 31번이었던 서왕진씨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의 권력자들은 국민의 위에서 억압하려하지 말고 국민이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정호기 전남대 박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작문집 전체를 평가 분석한 뒤 ‘고등학생의 시선으로 구성된 5·18담론’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시 고등학생에게 5·18이 어떻게 인식 및 기억되고 있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게 정박사의 분석이다. 정 박사는 “작문집은 석산고 1학년 학생들의 상당수가 5·18에 참여했거나, 현장 혹은 사건을 목격 및 관찰했음을 증언하다”면서 “작문집은 5·18이 종료된 이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집단 증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5·18 당시 고등학생인 6명이 발표자로 나서 헬기사격 목격 등을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 약속 지켜라” 5월단체들 충북도청 앞 1인 시위 나서

5·18 단체들이 청남대에 남아있는 전두환 동상을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2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월 단체들은 3일 충북도를 방문,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면담하고 전두환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지켜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 5월 이시종 충북지사 주재로 열린 시민단체 관계자 회의에서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철거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충북지사는 당시 조태정 등 의정자를 내세워 “2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단체들은 이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3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충북도

청 앞에서 전두환 동상의 조속한 철거를 요청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5월 단체 관계자는 “이 충북지사가 지난 5월 13일 약속한 ‘10월까지 철거’가 미뤄지고 있어 1인 시위에 나서는 것”이라며 “충북도의회가 조태정 등을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지만 시흥·무기지역에 처했던 자들을 미화하는 사업은 위법으로 조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옛 청남대에는 ▲전두환 대통령길 산책로(1.5km) ▲전시 동상과 각종 안내판 ▲대통령 기념관 등이 있고 각종 안내판에는 전세의 행정직을 찬양·기념하는 내용과 사진 등이 기록돼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일만에 또 멈춘 한빛원전 5호기 정밀조사

조사 기간 길어 원자로 냉각 결정

중기발생기 이상 문제로 가능한 지 20일 만에 멈추었던 한빛원전 5호기가 다시 원자로를 냉각시키고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정비를 끝낸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멈춰서고 정비불량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2일 한빛원전본부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최근 한빛5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봉 사용 오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원자로 냉각이 들어갔다.

한빛원전은 별도로 규제기관에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조사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자로를 냉각하기로 결정했

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와는 별개로 현장점검 및 영상자료를 통해 용접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빛원전 측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중 원자로 헤드 보수작업 과정에서 인코넬 690 재질로 용접해야 하는 부위에 스테인리스 재질 사용하는 등 규격에 맞지 않은 재질로 용접한 점을 발견,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추가 용접봉 사용 오류 의혹 등이 제기됐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공식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지역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속 조치 및 발전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폭력 피해 의뢰인 성폭력 국선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경찰, 이번 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변호사(광주일보 9월 4일 6면)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한편, 국선 변호수임을 배제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혐의로 동부경찰이 신청한 A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김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를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해당 변호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유전자 정보를 제공받아 국과수 정보와 비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자신의 국선변호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광주동부경찰은 이번 주 기소 의견을 달아 해당 변호사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개그맨 박지선 숨진 채 발견



개그맨 박지선(36·사진) 씨가 2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던 희극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개그계는 물론 시청자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박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씨의 부친이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둘 다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생전 소속사와 매니저 없이 홀로 활동해왔으며 최근 센스 있는 말솜씨를 기반으로 주로 가수 쇼케이스나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방송가 행사 진행을 해왔다.

고인은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 화장을 아예 못했지만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오히려 개그 요소로 활용하는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병이 악화되면서 야외 촬영은 물론 무대 행사 시 비추는 조명마저 고인을 상당히 괴롭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양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온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강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천,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